



88120161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Tuesday 13 November 2012 (morning)
Mardi 13 novembre 2012 (matin)
Martes 13 de noviembre de 2012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5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5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5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멋 없는 세상, 멋 있는 사람

버스 안은 붐비지 않았다. 손님들은 모두 앉을 자리를 얻었고, 안내양만이 홀로 서서 반은 졸고 있었다. 차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어린이 하나가 그 앞으로 확 달려들었다. 버스는 급정거를 했고, 제복에 싸인 안내양의 몸뚱이가 던져진 물건처럼 앞으로 쏠렸다. 찰나에 운전기사의 굼직한 바른팔이 5 번개처럼 수평으로 쪽 뻗었고, 안내양의 가는 허리가 그 팔에 걸려 상체만 앞으로 크게 기울었다. 그녀의 앞면이 버스 앞면 유리에 살짝 부딪치며, 입술 모양 그대로 분홍색 연지가 유리 위에 예쁜 자국을 남겼다. 마치 입술로 도장을 찍은 듯이 선명한 자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운전기사는 묵묵히 앞만 보고 계속 차를 몰고 있었다. 그의 듬직한 10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예술과도 같은 그의 숨씨도 멋이 있었고, 필요 없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의 대범한 태도도 멋이 있었다. 멋있는 사람들의 멋있는 광경을 바라볼 때는 마음의 창이 환히 밝아지며 세상 살 맛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요즈음은 멋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꿈에 떡 맛 보듯 어려워서, 공연히 옛날 이야기에 향수와 사모를 느끼곤 한다.

선조 때의 선비 조현도 멋있게 생애를 보낸 옛사람의 하나이다. 그가 교서정자(校書正字)라는 정 9품의 낮은 벼슬자리에 있었을 때, 하루는 궁중의 향실(香室)을 지키는 15 숙직을 맡게 되었다. 마침 중전이 불공을 드리는데 사용할 것이니 향을 봉하여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조현은“이 방의 향은 종묘와 사직 그리고 사전(祀典)에 실려있는 제례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공 드리는데 쓰시기 위한 향으로는, 비록 만 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은 감히 봉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하고 거절했다. 중간의 사람들이 20 몇 번 오고 갔으나 끝까지 굽히지 않았으며, 중전도 결국 그 향을 쓰지 않았다. 말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중전의 분부에 거역한 그의 용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나 강직이 용납될 수 있었던 당시의 궁중 기풍이 멋있어 보인다. -중략-

요즈음도 보기에 따라서는 멋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쩌다 일류 호텔의 로비나 25 변화한 거리를 지나면서 눈여겨보면, 눈이 부시도록 멋있는 여자와 주눅이 들리도록 잘생긴 남자들을 볼 수 있다. 얼굴이나 체격이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멋있는 일이요, 유행과 체격에 맞추어 옷을 보기 좋게 입는 것도 멋있는 일이다. 그리고 임기응변하여 재치 있는 말을 잘하는 것도 역시 멋있는 일이다. 그러나 겉모양의 멋이나 말썬씨의 30 멋을 대했을 때, 우리는 가볍고 순간적인 기쁨을 맛볼 뿐 가슴 깊은 감동을 느끼지는 않는다. 세상을 사는 보람을 느낄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역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형의 멋, 인격 전체에서 풍기는 멋이 아닌가 한다. 바로 그 무형의 멋 또는 인격의 멋을 만나기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몹시 어려운 것이다. 멋있는 사람의 35 소유자를 만나 보고자 밖으로만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멋있는 삶을 갖도록 노력하는 편이 더욱 긴요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뉘우쳐 보기도 한다. 멋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삶의 맛을 더하는 길이겠지만, 내 자신의 생활 속에 멋이 담겼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위가 온통 멋없는 세상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 마음 속에 멋을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을 가린다. 그런 생각부터 앞서서 는 것 자체가 아마 내 사람됨의 멋없음을 말해 주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 현실을 암흑에 비유하고 세상을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결국은, “네 운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니체는 멋있는 철학자였다. 어느 시대인들 세상 전체가 멋있게 돌아가기야 했으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를 가나 으레 속물과 속기(俗氣)가 판을 치게 마련이다. 세상이 온통 속기로 가득 차 있기에 간혹 나타나는 멋있는 사람들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힘도 없는 주제에 굳이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어진 현실을 주어진 그대로 조용히 바라보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작은 웃음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멋이라면 멋이요, 맛이려면 맛이 아닐까.

김태길 <멋 없는 세상, 멋 있는 사람> (1981)

2.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 슬퍼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꿀꺽꿀꺽 먹어라
- 5 그리고 파닥파닥 살아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강물이 흐르고 새가 날던
 아득한 옛날부터
- 10 장미꽃에
 물방울이 맺혀 구르듯
 이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은
 그렇게 둥그러이 그렇게
 완벽한 꿈으로 젖어 있나니
- 15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들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단지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 20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살아가며
 때로는 파아란 불꽃을 통긴다
- 오늘 슬퍼하지 말라
 오늘 절망하지 말라
- 25 오늘 좌절하지 말라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룩주룩 슬퍼하는 자는
 벼락을 맞아 죽으리라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 30 절망하는, 좌절하는 자는
 악마와 돼지가 돼 버리리라
- 오오, 이 세상은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와 산봉우리로 가득하고
- 35 밭고랑에 씨앗을 놓는
 아버지와 봄비와 하느님으로 가득하다

오오, 하늘아래
빈틈 없이 꽃 피어 있는
사람의 사람다움!
40 사람의 눈물과 앞가슴!
그리고 사람의 따스한 두 손!

김준태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1981)
